

가정환경 및 발달사항의 시계열적 변화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형진** · 김규원***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 년도와 3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2년 동안의 패널조사 기간 중에 부모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적응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패널조사 기간 중에 일어난 청소년 개인의 발달사항 변화와 빈곤 및 가족소득의 감소도 변수로 추가하고 성별, 전학유무, 남녀공학, 거주지역 등은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학교적응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몇몇 모형에서 부모의 구성변화를 겪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적응의 지수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개인발달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들이 통계모형에 추가된 이후에는 그러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나 소득감소 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환경 요인의 변화 보다는 자존감, 또래애착, 동기조절, 그리고 행동조절 등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변화가 학교적응의 변화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정책에서 부모의 구성이나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보다 청소년 개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발달사항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학교적응, 부모구성, 발달요인, 자존감, 또래관계, 학습습관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된 논문으로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주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sockim@knu.ac.kr

I. 서 론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이루어 내는 장이다.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사회가 기대하는 규범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식까지 배우는 곳이 학교이기에 학교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의 양상은 어떠하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를 축적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가족구조의 변화, 가구소득의 감소, 그리고 청소년 개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사항 등이 학습활동, 교칙의 준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 년도와 3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2년 동안의 패널조사 기간 중에 부모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분석함은 물론, 패널조사 기간 중에 일어난 청소년의 개인발달 사항의 변화와 빈곤 및 가족소득의 감소를 변수로 추가하고 성별이나 기타 상이한 개인적 배경 등은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관련연구 분야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패널자료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청소년이 현재와 과거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보이는 차이를 역시 상이한 두 시점에 측정된 여러 요인들의 변량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해당 가족구성 및 개인발달 사항의 변화가 학교에서의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려는 실천적 의의도 함께 지닌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의 개념화

학교적응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상이하기에 이에 관한 경험적 측정도 기존의 연구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유무나 교과목 성적으로 측정된 학업성취나 학업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였다(이정은, 조미형, 2007; 조정아 2012).

이러한 과거의 연구들이 성적 및 진학 등 학교적응의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적응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의 연구들은 학업성취나 학업수행 능력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하여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규석(2004)은 학교적응을 학교생활 만족도 등과 같은 전반적 적응도와 성적으로 대표되는 학업적 적응도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유안진, 이정숙과 서주현(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을 교사적응, 교우적응, 규칙적응의 3개 하위 개념으로 구성하는 시도를 하였다. 한편, 곽수란(2006)은 학교적응을 학교 구성원 간의 좋은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적응,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정의적 적응, 그리고 학습활동의 영역인 학업적 적응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는 학교적응의 여러 측면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라는 4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하위개념을 구성하고 있고, 이로부터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을 “학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학교의 구성원인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동일한 개념을 적용한 분석으로는 서정아, 조홍식과 장주희(2012)와 조정아(2012)의 연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학교생활 적응을 4개의 하위 차원으로 나눈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개념화를 따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4개의 하위영역에서 측정된 지표를 합하여 전반적인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점수를 만들고 1차 년도와 3차 년도에서 측정된 학교적응 점수의 차이를 통해서 청소년이 현재와 과거의 학교적응에서 보이는 변화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삼았다.

2. 가족구조와 학교적응

가족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의 교육성취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경험적 연구에서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부모구조의 변화는 부모의 갈등을 지켜 본 청소년들이 경험한 심리적 불안감과 부모의 이혼 후 경제적 자원의 감소 등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왔다(Entwisle & Alexander, 1996; Thompson, Entwisle, Alexander & Sundius, 1992).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이혼으로 한부모가구, 특히 편모가구의 증가와 함께 부모의 가출 등의 이유로 남겨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조손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의 교육성취, 학교적응 및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구인회, 2003; 남영옥, 2010; 이삼연, 2002; 이해승, 2004; 장덕희, 장경아, 2009).

학교적응으로 주제를 좁히면 양친가정과 비교하여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상급학교의 진학유무로 측정된 교육성취 결과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 보다 더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구인회(2003)의 연구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학교적응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남영옥(2010)의 연구가 특히 눈에 띈다. 그러나 전자는 종속변수가 교육성취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차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라고 보기 힘들며 후자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횡단분석이라 서로 다른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나이와 부모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통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기여와 한계를 염두에 두고 한국청소년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의 이유로 부모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동일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습활동, 교칙의 준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적응의 점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분석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최근에 부모의 이혼 등의 이유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겪은 청소년들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Emery, 1999; McLanahan & Sanderfur, 1994)를 염두에 두고 최근에 (패널조사 1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에)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그들의 특성을 다른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패널자료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족구조의 변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3.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학교적응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에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청소년들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나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력연수나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으로 측정된 교육 성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결과를 거두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구인회, 2003; 방하남, 김기현, 2001).

최근의 연구들 중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들에 초점을 맞추자면, 강유진과 문재우(2005)는 가족의 경제상태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도 특히 학과목 성적으로 측정된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김광혁과 차유림(2007)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가구의 빈곤이 부모의 투자자원 부족과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결여(경제적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연간소득을 이용하여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함은 물론 패널조사 1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에 일어난 저소득층의 가족소득 감소도 상호작용항으로 추가하여 가구의 경제상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4. 청소년 발달요인과 학교적응

청소년기는 인지적 발달은 물론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또래집단에서의 사회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친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은 끼칠 것으로 추론된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

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정도가 클수록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론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문은식, 김충희, 2002; 최지은, 신용주, 2003; 정규석, 2004).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을 측정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분석되었고, 이들 연구에서 일관되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순미, 유형주, 2003; 임수경, 이형실, 2007; 이윤화, 2010).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측정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점수 차이를 현재와 과거의 학교적응에서 보이는 변화를 예측하는 사회적 발달요인과 정서적 발달요인으로 분석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거론된 또래관계나 자아존중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학교적응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편은 아니지만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학습습관” 또는 “자기조절 학습능력”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다. 자기조절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동기, 그리고 행동을 체계적으로 조절 및 관리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Zimmerman & Martinez-Pons, 1990). 자기조절 학습능력은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조절이 학습 내용을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동기조절은 학습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치를 이해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이고, 행동조절은 지루함이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양명희, 2005). 국내의 경험적 연구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고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잘 통제하며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학업성취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박승호, 서은희, 2008),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도의 증가세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양명희, 이경아,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는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세 가지 하위 개념들 중에서 비교적 계량화가 용이한 동기조절과 행동조절을 각각 “성취가치 및 목적지향” 그리고 “행동통제 및 시간관리”라는 영역에서 9개의 4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학습습관(자기조절 학습능력)에 관한 변수들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패널조사 1차 년도와 3차 년도 간에 차이로 측정되어 분석에 이용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수행할 예정인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 201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의 세 개의 패널집단 중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미 조사가 완료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 년도와(2010년) 3차 년도의(2013년)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 자료는 학생 본인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사항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보호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기에 표본의 수는 1차 년도 당시 중학교 1학년과 그들의 보호자 2,351쌍이었고 3차 년도에 추적에 성공한 조사대상은 2,222 사례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측정된 여러 요인들의 변화량 간의 인과관계를 패널조사 1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에 일어난 학교적응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패널조사 1차 년도와 3차 년도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된 “학교생활적응” 점수의 차이이다.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는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라는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각 하위 영역 당 4점 척도(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은 편이다=3; 전혀 그렇지 않다=4)로 측정된 다섯 개의 설문을 배치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구성하는 스무 개의 문항 중 부정적 질 문인 두 문항은 그대로 코딩하고 나머지 열여덟 문항은 역으로 코딩한 후 이들을 합하여 지수를 만들었는데 패널조사 1차 년도와 3차 년도 문항들 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0.852와 0.865로 나타났다. 이들 지수를 다시 최저값이 0이고 최대값이 100인 점수로 바꾸어 학교적응 점수를 구성한 후 최종적으로는 3차 년도와

1차 년도에서 각각 측정된 학교적응 점수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삼았다.

종속변수에 대한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어느 한 시점의 학교생활적응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청소년이 현재와 과거의 학교적응에서 보이는 차이를 상이한 두 시점에 측정된 특정 요인의 변량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3. 가족 및 부모구성의 변화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 자료에서 청소년의 가족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변수들로는 가족구성과 부모구성이 있다. 가족구성 변수를 통해서 가구 내 부모 이외의 다른 보호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가족원들의 구성을 알 수 있지만 부모가 친부모인지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반면, 부모구성 변수는 부모의 동거 유무와 부모가 친부모인지 아닌지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부모 이외의 동거하는 보호자에 대한 정보는 구할 수가 없다. 본 연구는 가족구성과 부모구성 변수를 모두 사용해서 패널조사 기간 중에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가족구성변화” 그리고 부모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는 “부모구성변화”라는 더미변수로 각각 따로 입력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친부모와 동거하는 상태를 패널조사 기간 중에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양친유지”라는 더미변수도 다중회귀분석에 함께 포함시켰다(친아버지와 친어머니의 부모구성이 유지되는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표 1은 패널조사 1차 년도와 3차 년도에서 측정된 부모구성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어둡게 처리된 대각선상의 칸들이 부모구성의 변화가 없었던 사례들의 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밖의 칸들은 2년 안에 부모구성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를 보여준다. 동일한 열에서(1차 년도의 부모구성을 기준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대각선 왼쪽 최상단의 칸인 “양친유지”(1차 년도에 “친아버지+친어머니”가 3차 년도에도 “친아버지+친어머니”로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빈곤과 가족소득의 감소

가족의 소득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의 1차 년도 자료에서 가구연간소득의 상위 10%와 하위 10%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각각 만들고 패널의 3차 년도 자료에서 측정된 가구연간소득에서 1차 년도 자료의 소득을 빼서 그 결과가 음인 경우는 “가족소득 감소”라는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아울러 가족소득의 감소효과가 저소득층 가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득하위 10%와 가족소득감소라는 두 더미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항도 추가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패널조사 기간 중 가구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경우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도 분석하였다.

표 1
부모구성의 변화

		3차년 부모구성						
		1	2	3	4	5	6	계
1 차 년 부 모 구 성	1	1843	13	23	5	2	1	1887
	2	19	84	1	5	0	9	118
	3	34	1	113	0	1	1	150
	4	15	5	0	6	0	1	27
	5	5	0	2	0	7	0	14
	6	3	5	3	0	0	15	26
	계	1919	108	142	16	10	27	2222

1=친아버지+친어머니; 2=친아버지만; 3=친어머니만; 4=친아버지+새어머니;
5=친어머니+새아버지; 6=부모님 모두 안 계심

5. 청소년의 개인발달사항 변화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 자료는 청소년의 개인발달을 측정하는 항목을 크게 정서발달, 인지적발달, 사회적 발달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본 연구는 정서발달에 해당하는 “자존감”이라는 문항과 지적발달에 해당하는 “학습습관(자기조절 학습능력)”,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측정하는 항목 중 “또래애착”이라는 문항을 변수로 채택하였다.

“자존감”의 측정은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가 4점 척도로 구성된 10개 문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이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은 역으로 코딩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은 그대로 코딩한 값을 합한 후 이를 다시 최저값이 0이고 최대값이 100인 점수로 바꾼 다음, 3차 년도와 1차 년도에서 측정된 점수의 차이를 변수로 삼았다. 자존감의 변화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변화로, 음수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적 발달사항에 해당하는 “학습습관(자기조절 학습능력)”은 “성취가치 및 목적지향(동기조절)”과 “행동통제 및 시간관리(행동조절)”라는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는데 이들 하위영역은 각각 9개의 4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자존감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문항에서 합산한 점수를 100점으로 치환한 후 궁극적으로는 3차 년도와 1차 년도에서 측정된 점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변수로 만들었다.

“또래애착”은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에서 “의사소통”, “신뢰”, “소외”라는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 영역 당 세 개의 설문을 배치하여 역시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하위개념인 “교우관계”가 주로 학교생활에서 야기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갈등이나 어울림에 관한 것인 반면에 “또래애착”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관한 사항을 주로 측정하고 있다. 척도를 구성하는 아홉 개의 문항을 두 시점에서 측정하여 각각 지수화 한 다음, 이 역시 회귀분석에서의 계수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100점으로 바꾸고 두 점수의 차이를 다중회귀분석에서 변수로 이용하였다.

6. 기타 통제변수의 측정

성별, 전학유무, 남녀공학, 거주지역(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이 기타 통제변수로 추가되었으며 남녀공학이 학생의 성별로 상이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학생과 남녀공학의 상호작용 항도 아울러 추가하였다.

표 2
분석대상의 특징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교적응변화	3.135	13.138	-65.0	68.3
양친유지	0.830	0.377	0	1
부모구성변화더미	0.120	0.325	0	1
가족구성변화더미	0.130	0.339	0	1
여학생	0.500	0.500	0	1
전학	0.040	0.207	0	1
남녀공학	0.740	0.439	0	1
가구소득감소	0.300	0.460	0	1
수도권	0.250	0.431	0	1
광역시	0.330	0.469	0	1
자이촌중점수차	0.769	16.130	-50.0	70.0
또래에착점수차	2.227	17.739	-92.6	74.1
동기조절점수차	-3.574	20.586	-92.6	96.3
행동조절점수차	1.631	17.339	-70.4	77.8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의 특징

분석대상인 청소년의 특징은 다중회귀분석에 이용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 2에 제시되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점수는 2년 동안의 패널조사 기간 중에 평균 3.1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83%) 부모구성의 변화 없이 친부모와 동거하는 상태를 패널조사 기간 중에 유지하였으나 부모구성의 변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를 2년 동안 겪은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12%와 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구성의 변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는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기에 부모구성의 변화를 겪은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의 변화도 아울러 겪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여학생이고 대다수가(약74%) 남녀공학에 재학 중이며 4%정도의 학생이 조사기간 중에 전학을 경험하였음을 볼 수 있다. 약 30%의 청소년들이 가구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그 밖의 지역의 비율은 각각 25%, 33%, 그리고 42%이다. 2년 동안의 조사기간 중에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그리고 “행동조절” 점수는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동기조절” 점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상관계수가 0.7을 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에서 첫 번째 세로 줄을 살펴보면 1번 변수, 즉 “학교적응 점수차”가 “5=자아존중 점수차”, “6=또래애착 점수차”, “7=동기조절 점수차”, “8=행동조절 점수차”, 그리고 “9=여학생”이라는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청소년의 개인발달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들 및 성별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다섯 번째 세로 줄을 살펴보면 “5=자아존중 점수차”가 “6=또래애착 점수차”, “7=동기조절 점수차”, “8=행동조절 점수차”와 같은 청소년의 개인발달 변화의 다른 하위영역들과도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00																
2	-0.03	1.00															
3	-0.02	-.603**	1.00														
4	0.02	-.380**	.562**	1.00													
5	.215**	-0.02	-0.01	0.02	1.00												
6	.205**	-0.02	0.02	0.01	.284**	1.00											
7	.457**	0.01	-0.01	0.01	.178**	.152**	1.00										
8	.414**	-0.01	0.01	-0.01	.219**	.096**	.444**	1.00									
9	.086**	0.03	0.02	-0.01	0.03	0.00	.108**	0.02	1.00								
10	0.01	-0.04	0.02	0.04	0.01	0.01	0.00	-0.01	0.02	1.00							
11	0.04	0.00	-.144**	-0.03	0.01	0.00	0.01	0.00	-.068**	.063**	1.00						
12	0.02	-.393**	.103**	.108**	0.01	0.00	.044*	0.04	-0.01	0.01	-0.01	1.00					
13	-0.01	.109**	-0.01	0.00	0.00	-0.04	0.01	0.00	0.01	0.01	-0.01	-.130**	1.00				
14	0.02	-0.03	.049*	0.03	0.01	0.01	-0.02	-0.02	0.02	-0.01	-0.04	-.183**	.208**	1.00			
15	-0.01	0.01	.110**	-0.01	0.01	-.058**	0.03	.061**	.091**	.091**	0.02	-.069**	.072**	0.00	1.00		
16	0.01	0.01	-0.04	-0.01	-0.02	0.01	0.02	0.01	0.03	-0.03	.072**	-0.01	-.046*	-0.01	-.399**	1.00	
17	0.00	-0.02	-.060**	0.02	0.01	0.04	-0.04	-0.04	-.081**	-.053**	-.084**	.067**	-0.02	0.01	-.494**	-.601**	1.00

1 = 학교적응변화; 2 = 양친유지; 3 = 부모구성변화; 4 = 가족구성변화; 5 = 자아존중감수차; 6 = 모델애착점수차; 7 = 동기조점수차; 8 = 행동조건점수차; 9 = 여학생; 10 = 전학; 11 = 남녀공학;

12 = 소득상위 10%; 13 = 소득상위 10%; 14 = 가구소득감소; 15 = 수도권; 16 = 광역시; 17 = 기타지역.

**p<0.01; *p<0.05 (two-tailed)

한편 부모의 구성변화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 3의 세 번째 세로 줄을 살펴보면 “12=소득하위10%” 그리고 “14=가구소득 감소”가 이 변수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빈곤층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부모구성의 변화가 더 빈번하고 역으로 그러한 부모구성의 변화는 가구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의 거주지역이 가족소득 또는 빈곤과 관련된 양상도 나타났는데 예를 들자면, “12=소득하위10%”가 “15=수도권”과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17=기타지역”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이 종속변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지라도 변수로 추가하여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차이를 통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표 4에 제시된 “모형1”은 앞에서 살펴본 변수들 중 청소년의 개인발달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인 “자이존중 점수차”, “또래애착 점수차”, “동기조절 점수차”, 그리고 “행동조절 점수차”를 제외하고 가족 및 부모 구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더미변수와 가족의 소득수준, 성별, 전학유무, 남녀공학, 거주지역 등의 통제변수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1에서는 “부모구성의 변화”와 “여학생”이라는 더미변수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속변수가 100점으로 환산된 두 시점에 측정된 값의 차이이기에 “부모구성의 변화”라는 더미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2.983”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구성이 변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학교적응 점수가 2.983점 하락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패널조사 기간 중에 부모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적응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이다. 모형 1은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에서 평균 2.289점 더 높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2”에서는 남녀공학이 성별로 상이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학생과 남녀공학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고 빈곤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패널조사 기간 중 가족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경우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소득하위10%와 가족소득감소라는 두 더미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항도 아울러

추가한 결과이다. 부모구성의 변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여학생의 긍정적인 영향은 이 모형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적응의 변화점수가 2.863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녀공학*여학생”이라는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회귀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절대 값이 남녀공학의 계수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남녀공학이 여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서 부정적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하위*소득감소”라는 상호작용 항을 첨가하고도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학교적응변화	모형1 B	모형2 B	모형3 B	모형4 B
(상수)	2.826 *	1.392	2.530 *	3.967 ***
양친유지	-1.749	-1.890	-1.954 *	-1.910 *
부모구성변화	-2.983 *	-3.115 *	-2.462 #	-2.418 #
가족구성변화	0.610	0.606	0.516	0.505
여학생	2.289 ***	4.935 ***	3.902 ***	1.366 **
남녀공학	1.054	2.863 **	2.638 **	0.896
전학	-1.287	-1.322	-0.471	-0.443
소득하위10	0.329	-0.634	-0.627	-0.706
소득상위10	-0.557	0.683	-0.620	-0.599
가구소득감소	0.638	0.805	0.682	0.663
수도권	-0.305	-0.250	-0.826	-0.845
광역시	-0.002	0.142	-0.180	-0.315
자아존중점수차			0.059 ***	0.057 ***
또래애착점수차			0.078 ***	0.078 ***
동기조절점수차			0.191 ***	0.193 ***
행동조절점수차			0.190 ***	0.188 ***
남녀공학*여학생		-3.414 *	-3.253 **	
소득하위*소득감소		-3.494	-0.306	
R제곱 (수정값)	0.012(0.006)	0.015(0.009)	0.284(0.278)	0.281(0.276)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요인들은 종속변수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과 표 4의 결과를 종합해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학교적응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자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부모구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고, 역으로 부모구성의 변화가 가구소득의 감소를 불러오기 쉬운 것 또한 사실이지만 빈곤이나 가구소득의 감소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부정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형3”은 청소년의 개인발달 변화를 측정하는 네 가지 변수를 모형2에서 추가한 것인데 기존 모형과 비교할 때 R제곱의 극적인 증가는 종속변수의 변량이 기존의 변수보다는 새로 추가된 네 가지 변수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설명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새로 추가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회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부모구성의 변화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더미변수인 “여학생” 및 남녀공학과 여학생의 상호작용 항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4”는 모형의 경제성을 위해 모형3에서 두 가지 상호작용 항을 제외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모형3 보다 더 적은 수의 변수로도 변량의 설명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R제곱 값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전의 모형들에서와 같이 성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며 무엇보다도 개인발달 변화를 측정하는 네 가지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양친유지”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수인 점은 부모구성에서 양친유지가 압도적인 다수라는 점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관심, 양육태도 등의 변수를 추가한 분석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 년도와(2010년) 3차 년도의(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2년 동안의 패널조사 기간 중에 부모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적응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패널조사 기간 중에 일어난 청소년의 개인 발달 사항의 변화와 빈곤 및 가족소득의 감소도 변수로 추가하고 성별이나 기타 상이한 개인적 배경 등은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학교적응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어진 기간 동안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의 이유로 부모의 구성변화를 겪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습활동, 교직의 준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학교적응의 지수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개인발달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들을 다중 회귀분석 모형에 추가한 이후에는 그러한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구성의 변화 보다는 자존감, 또래애착, 동기조절, 그리고 행동조절 등 청소년의 개인발달 사항의 변화가 학교적응의 변화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정책에서 부모의 구성이나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보다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발달사항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널조사의 간격 중에 일어난 가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측면에서의 청소년 발달사항의 시계열적 변화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에서 패널자료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들 수 있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측정된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다양하며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고성희, 임성택, 2009; 남영옥, 2010; 배정이, 2008; 이정은, 조미형 2007; 정규석, 2004). 이는 본 연구가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학교생활적응의 다양한 하위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논문에서 발견된 사항들에 대한 일반화에 앞서 종속변수의 측정을 달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패널의 1차 년도와 3차 년도의 학교적응에서 보이는 차이를 역시 상이한 두 시점에 측정된 다른 변수의 변량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동일한 문항이 2개년도 자료에서 모두 나오는 변수들만을 사용하였기에 부모의 감독이나 애착 등의 변수가 다중회귀분석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관심, 양육태도 등으로 측정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측면이

부모구성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강유진, 문재우, 2005; 이혜승, 2004; 장덕희, 장경아,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록 부모구성의 변화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다른 변수들을 매개로 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구성변화를 겪은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패널조사가 계획대로 완료되어 방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면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여러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한계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고성희, 임성택 (2009).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1), 45-64.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1), 5-32.
- 김광혁, 차유립 (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29-51.
-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방하남,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박승호, 서은희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현황과 교육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35-152.
- 배정이 (2008).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한국간호과학회**, 38(3), 454-464.
- 서정아, 조홍식, 장주희 (2010).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명희 (2005).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탐색: 자기조절학습 수준과 자아개념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35-262.
- 양명희, 이경아 (2012).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변화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 검토. **교육과학연구**, 43(2), 175-195.
- 양순미, 유형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가정학회지**, 41(9), 121-134.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이삼연 (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1), 37-65.
- 이윤화 (2010). 조손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37-158.
- 이정은, 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 이혜승 (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한국가족복지학**, 11(1), 421-441.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장덕희, 장경아 (2009). 이혼가족자녀의 학교적응에 가족보호요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4(4), 5-24.
- 장상수 (2000).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3), 671-708.
- 정규석 (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10), 235-252.
- 조정아 (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류와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1), 277-309.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Brooks-Gunn, J., &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Emery, R. E. (1999). Postdivorce family life for children. In R. Tompson., & R. Amato (Eds.), *The Postdivorce family: Children, parenting and society*. Thousand Oaks: Sage.
- Entwisle, D. R., & Alexander, K. L. (1996). Family type and children's growth in reading and math over the primary gra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2), 341-355.

McLanahan, S.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family: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Thompson, M., Entwisle, D., Alexander, K., & Sundius, M. (1992). The Influence of family composition on children's conformity to the student rol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3), 405-24.

Zimmerman, B. J., & Martinez-Ponz,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51-59.

ABSTRACT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and developmental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A panel analysi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Shin, Hyungjin** · Kim, Gyuwon***

Utilizing the pane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Survey of 2010 and 201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and developmental factors on th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in South Korea. The outcome variables and predictors are measured as changes at two different points in the panel data, and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are then applied.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developmental factors (i.e. changes in self-esteem, peer-relations, and learning habits) are more important than family background factors (i.e.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family income) in predicting the outcome variable. One implication of our study is that it suggests that education policies addressing school adjustment problems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al factors of individual students rather than their family background.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peer-relations, self-esteem, learning habits,
family background, developmental factors

투고일 : 2013. 12. 8, 심사일 : 2014. 2. 5, 심사완료일 : 2014. 2. 12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12.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